우루과이의 농축산업과 무역(개요)[1)]

(원문) PRIMAFF 국제영역 행정전문원 시모호 노부히코(下保　暢彦)
(번역)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통칭 우루과이)은 지구상에서 정확히 우리나라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남미의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서양에 면한 인구 350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국토 면적은 일본의 절반 이하이며, 우리나라의 1.76배에 달한다[2)].

국토 대부분이 평지 혹은 완만한 구릉지로서 온난습윤기후[3)]에 속한다는 점에서,

---

1) 이 글은　下保　暢彦, ‘ウルグアイの農牧業と貿易’ 「世界の農業・農政」, primaff Review No. 99. 2021. 1.(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10129_pr99_04.pdf)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 정리, 보완, 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허 덕, 김태련, ‘우루과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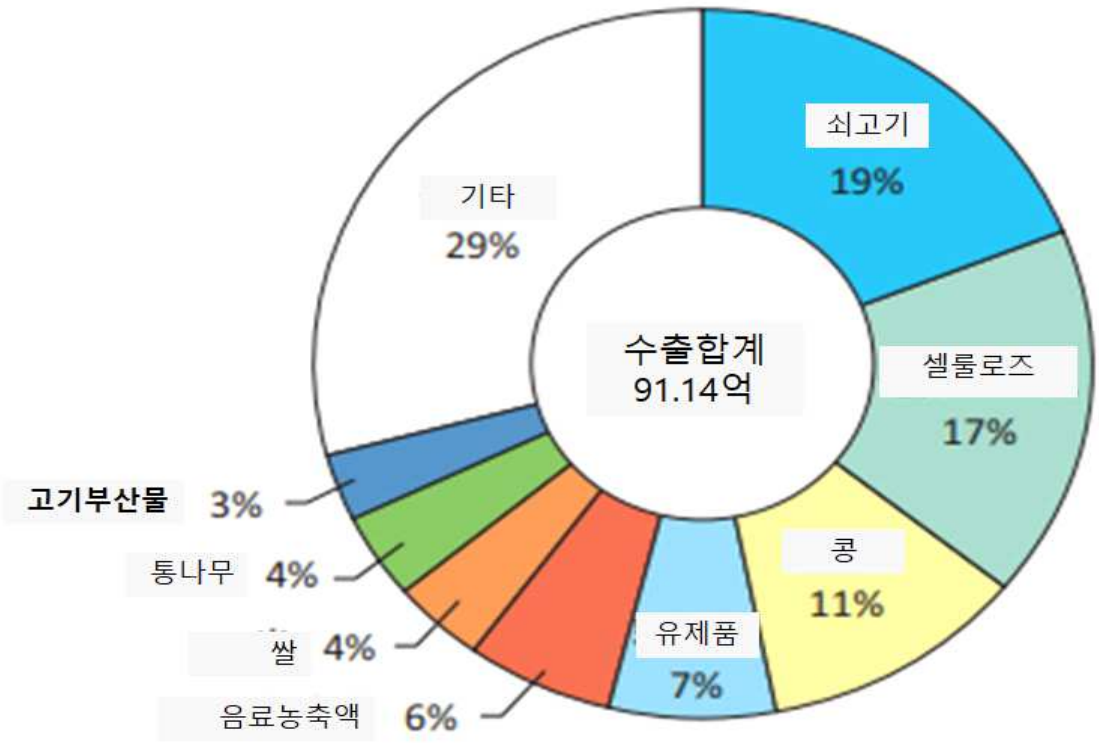
2) 2017년 FAO 기준으로 우루과이의 국토면적은 1,762만 2천ha, 일본 3,779만 7천ha, 한국 1,003만 6,371.5ha이다.(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KOTRA, FAO 등)

3) 온난습윤기후(temperature humid climate). 주로 중위도에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대륙의 서안에 위치하는지 동안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대륙 동안의 경우 온난습윤기후(Cfa)와 온대겨울건조기후(Cw)가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륙 동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여름에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한랭건조하다. 온난습윤기후는 주로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곳에 나타나며, 겨울에도 덜 건조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여름의 경우, 아열대 해상에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으로 열대기후와 비슷한 고온과 습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로 온난습윤기후를 아열대습윤기후(humid subtropical climate)라 부르기도 한다. 온난습윤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중국 동남부,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본 중남부, 미국 동남부, 남아메리카 동남부 등이다. 식생은 다른 온대기후와 비슷하게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있는 혼합림이며, 연중 따뜻하고 습윤한 특성에 따라 상록활엽수도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유명하며, 차 등의 재배도 활발하다. 남·북아메리카의 경우 밀, 옥수수, 콩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기업적 농업과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적 목축이 발달하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농지(방목지 포함)로 이용되고 있어 농축산업이 번성한 나라이다.

국내 경제에서는 총 부가가치의 5.9%(2019년, 우루과이 중앙은행)가 농축산업에서 발생되고 있다. 또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총수출액의 80% 이상이 농림축수산품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쇠고기나 콩, 유제품이 수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셀룰로오스나 통나무와 같은 임산물을 포함하면 상위를 농축산업이 독점하는 등 농축산업은 우루과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림 1> 품목별 수출비율(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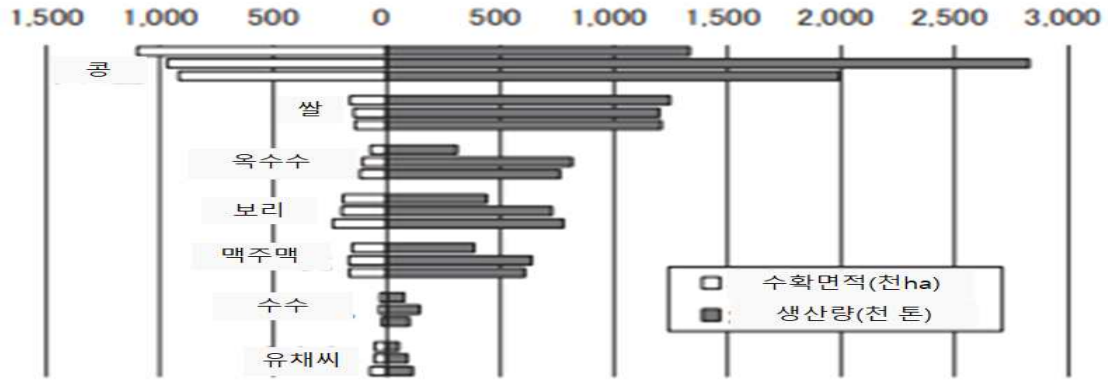
자료: 우루과이 수출투자촉진청 추계(세관・특구간의 교역은 미포함[4])에서 저자 작성.

4) 세관을 통한 통상 수출(63.02억 달러, 전체의 69%) 외에, 경제특구(자유무역구)에서 수출(28.12억 달러, 전체의 31%)을 포함하며, 세관・특구간의 교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우루과이 국내에 11개 있는 경제특구(자유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면세・비과세로 할 수 있다. 그 중 몇 개의 경제특구에서는 농림 관련 제조업이 활동하고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수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셀룰로오스, 콩, 농축 음료이다.(출처: 우루과이 투자수출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下保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에서 재인용). 이를테면 셀룰로오스는 우루과이(세관을 통과한)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원목(유칼리가 주)을 수출하여 경제특구에서 셀룰로오스로 가공되어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우루과이 통관에 의한 셀룰로오스 수출은 전무하며, 경제특구를 통해 100% 수출된다. 농축음료도 경제특구을 통한 수출이며, 콩도 52%가 경제특구를 통해 수출된다. 경제특구를 통한 수출을 포함하면 품목별 순위도 바뀐다. 아래 표와 같이 셀룰로오스나 농축음료가 상위에 랭크되는 한편, 원목은 셀룰로오스 원료로서 우루과이 통관에 의한 경제특구로의 수출이 상쇄되기 때문에 순위가 내려간다.

2. 경종농업(콩)

경종농업의 동향을 보면, 수출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콩이 면적측면에서나 생산량 측면에서 모두 압도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 다음으로 역시 주 수출품목인 쌀이다. 과거에는 밀 수출량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축소 경향에 있으며, 수출에서도 지위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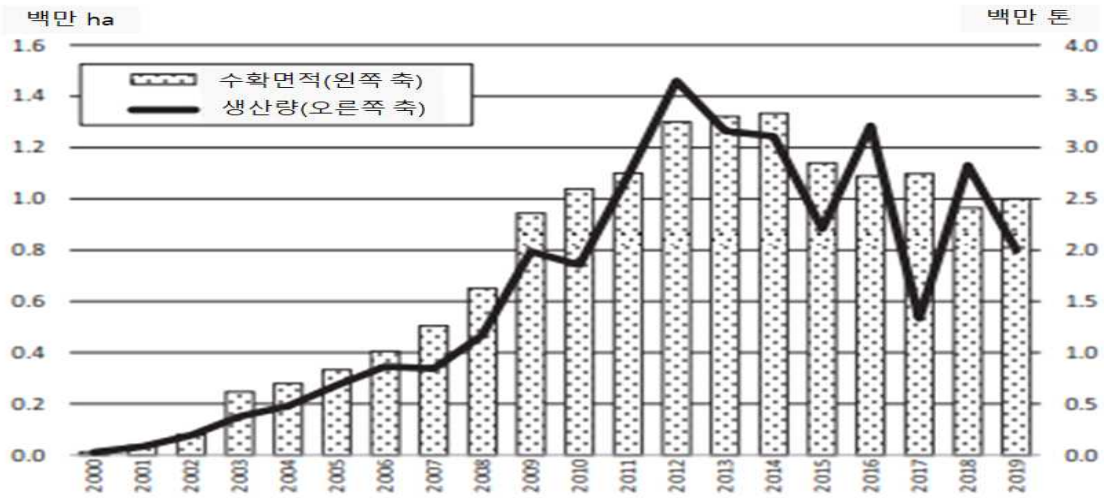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경종작물 생산



주: 각 작물의 횡의 막대그래프는 상단이 2017/18년도, 중단부터는 2018/19년도, 하단은 2019/20년도임.
자료: 우루과이 농목수산성, 「통계연보」에서 저자 작성.

콩에 대해서는 남미의 대규모 생산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가 유명하지만, 우루과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아르헨티나 자본유입(목초지 구입, 임차)으로 인해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생산량은 2012년에 365만 톤으로 피크(수확 면적의 피크는 2014년)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에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콩 생산 추이



자료 : 미국 농무부 PSD에서 저자 작성

콩에 대한 국제무역 상황을 보면, 콩기름이나 대두박이라는 가공품 무역도 번성하고 있지만, 우루과이에서는 국내용 가공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생산된 가공용 콩류는 거의 100%(재고 변동이나 수확 시기 관계로, 연 단위에서는 100%를 넘는 연도도 있음)가 생콩 상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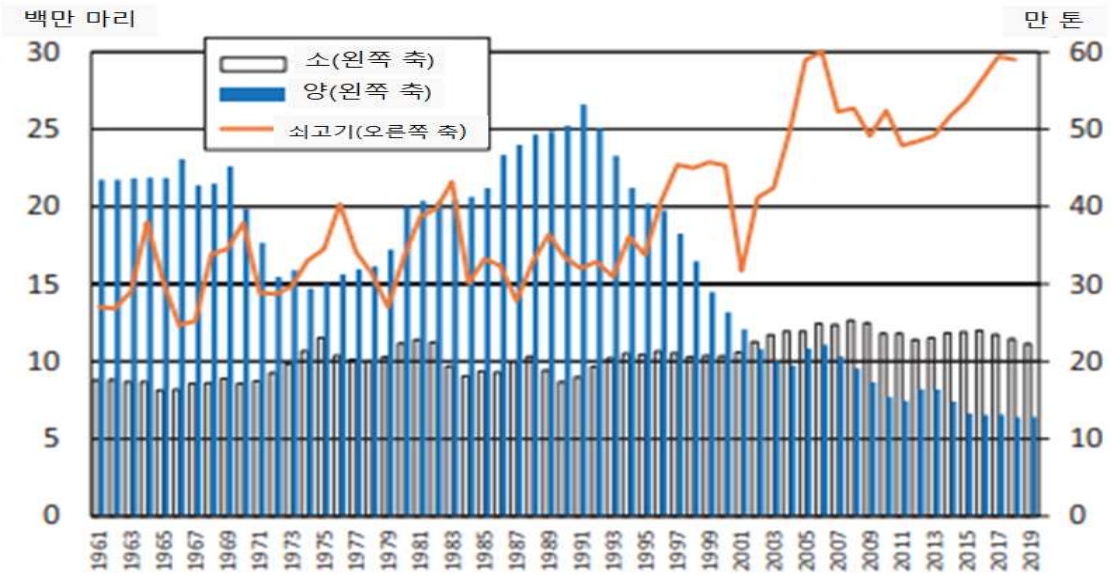
그 결과, 생산의 풍흉에 따라 연변동이 상당히 크지만, 순수출량이 연간 197만 톤(2017-19년 평균, 미국 농무부(USDA) 'PSD', 이하 같음)에 달하여, 브라질(8,119만 톤), 미국(4,976만 톤), 파라과이(560만 톤), 캐나다(411만 톤), 우크라이나(267만 톤)의 뒤를 잇는 세계 제6위[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그 수출 대상국을 보면,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약 70%(2019년에는 78%)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3. 목축업(쇠고기)

우루과이에서는 광대한 방목지를 배경으로 하여 소나 양 방목을 중심으로 하는 목축업이 전통적으로 번성하고 있으며, 그 사육 마릿수는 인구의 몇 배나 된다. 양은 1990년경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소의 경우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쇠고기, 유제품 생산을 지탱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소・양 사육두수와 쇠고기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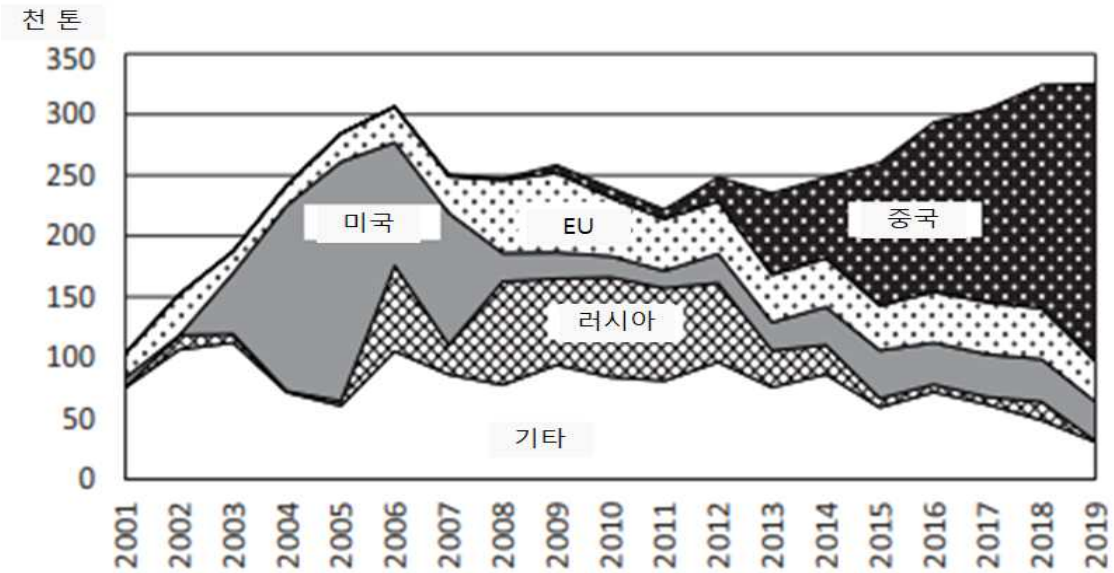
자료 : FAOSTAT에서 저자 작성.

5) 세계 3위의 콩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는 콩 가공품의 수출이 활발하고 콩(자실)의 수입도 일정량이기 때문에 자실 순수출량에서는 우루과이에 비해 조금 못 미친다.

특히 쇠고기는 국민의 주요 식량이자 중요한 수출품으로, 품목별 수출금액을 보더라도 1위를 계속 고수(2018년은 셀룰로오스가 근소하게 웃돌았기 때문에 쇠고기는 2위)하고 있다. 순수출량은 40만 톤(2017~19년 평균, 미국 농무부(USDA) 'PSD', 이하 같음)으로, 세계적으로도 브라질(200만 톤), 인도(160만 톤), 오스트레일리아(156만 톤), 뉴질랜드(58만 톤), 아르헨티나(50만 톤)을 뒤잇는 세계 제6위의 쇠고기 순수출국이다.

<그림 5>에서 수출 대상국을 보면, 2000년대 전반은 미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2010년 전후에는 러시아가, 2013년부터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그 양에 있어서도 최근 증가 경향에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량도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30만 톤을 넘었다.

<그림 5> 쇠고기 수출 대상국 추이



주: EU는 전체기간에 걸쳐 2019년 현재 28개 회원국의 합계임.
자료 : 우루과이 수출투자촉진청 추계에 의해 저자 작성.

4. 일본과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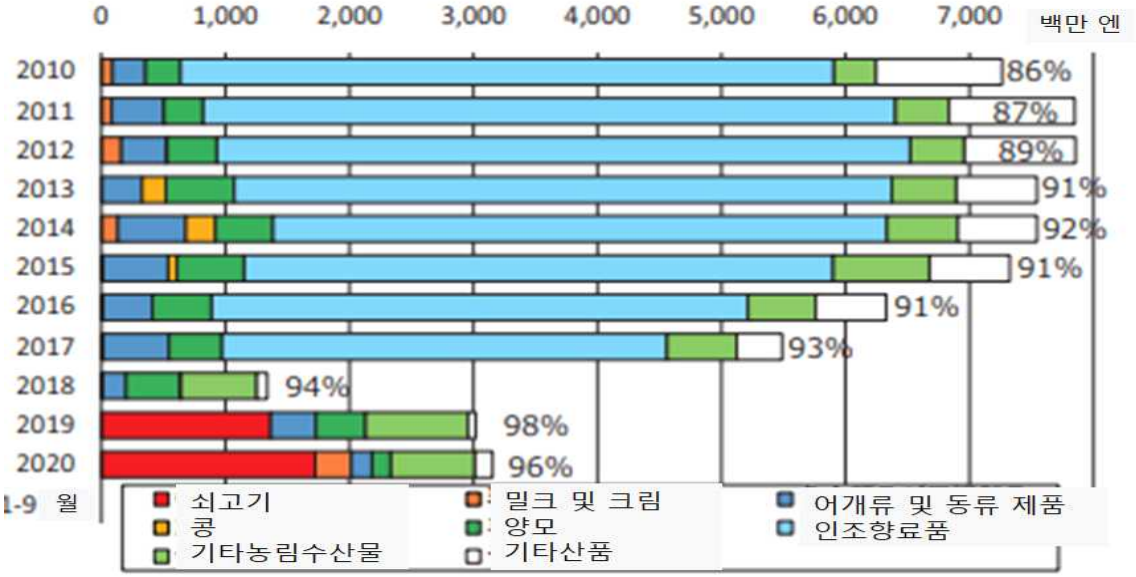
2019년 일본과 우루과이와의 무역에 대해 재무성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액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53억 엔(556억 5천만 원[6]) 남짓이며, 수입액은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하여 26억 엔(273억 원)이다. 일본의 무역액 전체가 약 80조 엔(840조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루과이와의 무역관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6) 엔/원 환율 1엔=10.5원 적용(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0.52원/엔)

우루과이로부터 일본으로 수입한 품목은 90% 이상이 농림수산품・식품이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50억 엔(525억 원) 정도를 기록하던 음료농축액[7]이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쇠고기 수입이 2019년 2월에 재개되어, 쇠고기가 우루과이로부터 수입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최근 농림수산품목의 비중이 95%를 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콩은 2011~15년에 근소하게 수입되었으나, 현재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

<그림 6> 우루과이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액 추이



주 1: 가로 막대 오른쪽의 계수(%)는 수입액 전체에 대한 농림수산품・식품(그림 중의 색깔 있는 부분)의 비율을 나타냄.
2. 품목의 분류・명칭은 기타라고 칭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무성 「무역 통계」의 개황품의 정의에 의함.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財務省 '貿易統計')에서 저자 작성.

5. 맺음말

재개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은 2020년 1~9월 누계 수입량이 1,856톤, 일본 수입 쇠고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4%로 아직 낮지만, 스테이크를 취급하는 레스토랑 체인으로 제공되는 등 2020년에도 전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루과이는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도 축산물 수출 촉진을 강화하고 있다.

7) 재무성 '무역통계'에서는 화학제품의 인조향료류(HS 코드 3302)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루과이의 수출통계상 음료농축물로 판명되었으므로, 농림수산품・식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향후 일본이 우루과이로부터의 수입에서 유제품[8]을 포함한 축산물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우루과이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메르코수르[9]와의 자유무역협정(TA 형태로 예상[10])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루과이의 농축산업 현황에 대해 사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 협상에 있어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8) <그림 6>에서 2020년에 약 2.9억 엔(30억 4,500만 원)의 개황품 '우유 및 크림' 수입실적이 있는데, 이는 사료용 분유(HS 코드 0402.10-216)이다.

9)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말한다. 영문 정식 명칭은 Southern Common Market이며, 사무국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소재해 있다.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단기간에 관세동맹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로 평가받는다. 메르코수르는 물류 · 인력 · 자본을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촉구하며 회원국과 준회원국 사이의 정치와 경제를 통합 ·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이후 모든 관세를 철폐하면서 단순한 경제블록을 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통합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창설 당시 회원국 간 역내 교역액은 연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58억 달러로 급증했다. 회원국 정부들도 메르코수르 공고화를 위한 관세동맹 완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세동맹을 넘어 재정통합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은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의 정식 가입 승인이 나면서 5개국으로 늘었으나, 2017년 7월 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당분간 정지됐다.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외교장관은 2017년 7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 복구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는 2012년 가입하며 4년 안에 정회원국 요건을 갖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메르코수르는 1998년 우수아이아 의정서에 근거해 회원국에 정치범을 풀어주고 민주주의로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0)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상호간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준거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체결로 명칭과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다. 광의의 무역협정은 (1)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선박의 대우,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의의 무역협정, (2) 협의의 무역협정에 부수하여 일정기간의 무역의 품목과 수량을 정한 무역계획, (3) 무역과 관련한 지불방법을 정한 지불협정(금융협정 · 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의 3요소를 포함하고, 때로는 통상협정이라고도 하지만 3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통상 항해조약(통상조약)이 무역관계 이외의 일반적 경제교류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중요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쳐 유효한 것과 비교하여, 규정한 사항의 범위가 좁고, 단기 또는 잠정적이다. 협의의 무역협정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수출입 품목에 관하여 수량, 예산금액, 결제방법 등의 기술적 · 행정적 세목을 규정하고 보통, 당기간의 무역관계가 대상이 된다. 특정의 1차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한 것을 국제상품협정이라고 한다. 지불협정은 보통 수출입 기타의 수지와 관련하여 지불내용, 환율, 협정예산의 운용세목, 이자, 기한 등을 정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https://terms.naver.com/). 한편, 보통 우리나라와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을 FTA라고 하는데, 한-메르코수르는 TA(Trade Agreement : 무역협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FTA와 거의 유사하다(출처; 산업부통상교섭본부, 알고보면 쓸모있는 통상용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https://blog.naver.com/tongsangnews/221609577328)

참고문헌

허 덕, 김태련, ‘우루과이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下保 暢彦, ‘第４章 ウルグアイ―主要農畜産物の動向―’, 「農林水産政策研究所［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３号（2020.3）」,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下保 暢彦, ‘ウルグアイの農牧業と貿易’ 「世界の農業・農政」, primaff Review No. 99. 2021. 1.(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10129_pr99_04.pdf)

財務省 ‘貿易統計’

우루과이 농목수산성, 「통계연보」

우루과이 수출투자촉진청, ‘Foreign Trade Report 2018’

미국 농무부(USDA) PSD

FAO, FAOSTAT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산업부통상교섭본부, 알고보면 쓸모있는 통상용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https://blog.naver.com/tongsangnews/221609577328)

대한민국 외교부

KOTRA